

# 이천수·안정환·이동국 탈락

2010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예비 엔트리



허정무호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축구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 출전할 예

## 허정무호 월드컵 예비명단 50명 발표

### 박지성·이영표 등 해외파 대부분 탈락

비 엔트리 50명을 확정했다.

그러나 예비명단에서 이천수(페예노르트)와 안정환(수원)은 제외됐다.

허정무 감독은 비롯한 축구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는 4일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월드컵 예선 예비 명단 50명을 제출했다. 다음달 6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치를 월드컵 예선 첫 경기 출전자는 이 명단을 기초로 정해질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제출한 명단은 말 그대로 예비 명단일 뿐이다. 언제든지 선수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정무 감독이 사령탑 취임 이후 처음 발표한 명단이란 점에서 향후 1기 허정무호의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자료가 될 전망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그동안 국가대표팀 주축으로 활약해온 이천수(페예노르트)가 제외됐다는 점이다. K-리그에 돌아온 뒤 활약이 미미했던 안정환(수원)도 빠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 시즌 K-리그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안정환(32·수원)을 비롯해 김영철(32·성남)과 송종국(29·수원) 등 2006 독일 월드컵 멤버들의 탈락은 허 감독의 세대 교체 의지와 연결된다.

예비 엔트리에 30대 선수는 김병지(38·서울), 이영표(31·토트넘), 김남일(31·비셀 고베), 이관우(30·수원) 4명 뿐이다. 반면 울림픽대표 연령대인 23세 이하 선수는 11명이나 된다. 2010년 월드컵 본선까지 내다본 포석인 셈이다.

게다가 박원재(24), 최효진(25), 조성환(26), 황지수(27), 황재원(27) 등 지난 시즌 포항을 K-리그 우승으로 이끈 ‘젊은 피’들이 대거 이름을 옮겼다. 정해성·수석코치가 가까이서 눈여겨 봤던 제주의 수비수 이상호(27), 미드필더 이동식(29), 구자철(19), 공격수 조진수(25) 등 아직 낯설지만 잠재력을 인정받은 선수들에 게도 태극마크를 달기 기회가 주어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 허 감독이 밝힌 이천수 탈락 이유

## “정신 좀 차려야”

4일 발표된 월드컵 예선 예비 명단은 허정무 감독이 대표팀 자취봉을 잡은 뒤 처음 나온 것이어서 향후 대표선수 선발 기준 및 팀 운영 구상을 염두에 두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간과할 수는 없다.

이번 명단은 이름값이 아닌 기량을 우선시하고 프로 및 대표선수로서 정신 자체를 강조한 허 감독의 취임 일성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 허 감독은 지난달 7일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된 뒤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대표로 발탁되지 못한 선수 중에서도 기량면에서 뒤지지 않는 자원들이 많다. 철저한 프로의 의식으로 준비가 된 선수들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지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드컵 스타’ 이천수(27·페예노르트)가 50명 안에 들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네덜란드에 진출한 이천수에게 리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배려로 엔트리 제외 배경이 될 수 있지만 정신력을 강조한 허 감독이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시즌 중 휴가를 얻어 일시 귀국한 것을 비롯해 갖자기 구설수에 오른 이천수에 대해 대표팀의 한 관계자는 사건을 전제로 “정신을 좀 차려야 할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허 감독은 “이천수 등 예비 명단에서 제외된 선수들이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지 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대 등 21명 합류

### 광주상무 우승 ‘담금질’

## 지성, 복귀골 쏜다

### 잉글랜드 FA컵 축구 애스턴 빌라전 출전 기대

‘잘 만났다. 애스턴빌라.’  
‘돌아온 산소 탱크’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하 맨유·사진)이 세계 최고의 전통을 자랑하는 잉글랜드 FA컵 축구 무대에서 복귀골을 노렸다.

박지성은 6일 오전 2시15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베밍엄 빌라파크에서 펼쳐질 2007~2008 FA컵 3라운드(64강전) 애스턴 빌라와 원정경기를 앞두고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270일 만에 그라운드를 밟은 지난달 26일 선덜랜드전에서 교체 투입돼 35분을 뛰고 지난 1일 베밍엄시티전에서 75분 간 활약한 박지성은 이번 경기에서 킁박 후 첫 풀타임 출전도 기대된다.

애스턴빌라는 박지성과 인연이 많은 팀이다. 맨유 유니폼을 입고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하던 시절인 2005년 8월20일 박지성은 애스턴빌리를 맞아 결정적인 슈팅을 때렸지만 크로스바를 강타하고 나왔다.

그해 12월17일 다시 애스턴빌라와 맞붙었을 때 시즌 4호 도움을 올렸지만 또 골대를 맞쳤다. 두 번이나 골대 불운을 맞았던 애스턴빌라와 작년 1월17일 다시 맞대결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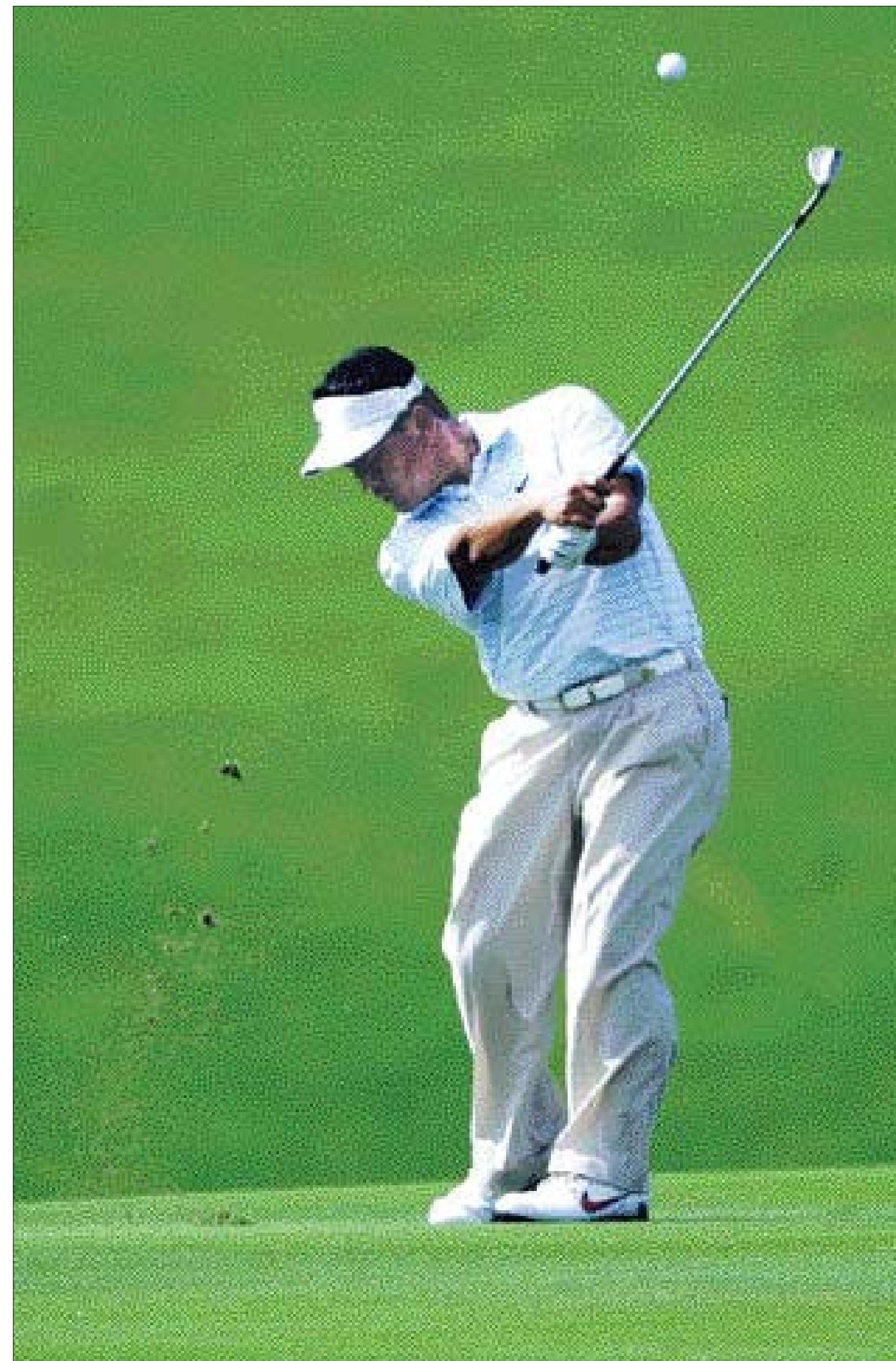


기어이 골을 뽑아냈다. 멋진 오른발 논스톱 슛으로 네트를 훔들었고 마이클 캐릭의 골까지 어시스터트해 1골, 1도움을 올렸다.

주전 공격수들의 부상 공백으로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이동국(29·미들즈브러)은 5일 저정 애쉬تون레이트에서 펼쳐진 브리스톨시티와 FA컵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애타게 기다려온 골 소식을 전해야 한다. 이동국은 호삼 아메드 미도 등 주전 공격수들이 다음 주 이후엔 돌아오기에 이번 경기가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이영표(31·토트넘)은 같은 시간 런던 학이트하트레인에서 레딩FC와 맞붙고, 설기현(29·풀럼)은 하루 늦은 6일 밤 11시 크레인본코티지 홈구장에서 브리스톨 로버스와 대적한다.

골프·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b>록펠러 회원권</b>	
골프	작 시세권권
광 주 3,500	무 실버 1,800
남 광 4,200	중 골드 2,400
클럽900 6,500	도 퀸 3,000
성남(062)351-0095	



탱크, 페어웨이 샷

4일 최경주가 메르세데스 벤츠 챔피언십 골프 첫 라운드 9번홀 페어웨이에서 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탱크’ 첫날 부진

### PGA투어 … 최경주 하위권

‘한국산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막전 첫날 난조에 허덕이며 하위권으로 밀렸다.

최경주는 4일(한국시간) 하와이주 마우이 섬 카랄루아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파73.7 천411야드)에서 작년 투어대회 우승자 31명이 출전한 가운데 열린 메르세데스-벤츠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더블보기를 2개나 적어내며 6오버파 79타를 쳤다.

29위로 처진 최경주는 5언더파 68타를 친 선두 닉 와트니(미국)와 11타차로 벌어져 개막전을 우승으로 장식하려던 포부는 이루기 어려워졌다.

다니엘 초프라(스웨덴)가 4언더파 69타, 1타차로 선두를 뒤쫓았고 앤젤 카브레라(아르헨티나) 등 3명이 3언더파 70타로 3위 그룹을 형성했다.

2003년 대회 때 코스레코드(62타)까지 세운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고 작년에도 공동 8위에 오르는 등 코스와 궁합이 잘 맞았던 최경주는 비가 쏟아지고 바닷바람이 몰아친 초반부터 고전했다.

버디는 1개 뿐이고 더블보기 2개와 보기 3개를 겪인 최경주는 이 대회에서 최악의 스코어카드를 제출했다. 최경주는 2006년과 작년에 한 번씩 77타를 친 적이 있다.

## ML투수 리마 27만달러 계약

### 기아, 내야수 발데스도 30만달러에 사인

KIA 타이거즈가 메이저리그 통산 89승 투수 호세 리마(36·우완)와 LA다저스에서 활약했던 내야수 윌슨 발데스(30·우타)를 영입해 ‘V10’을 향한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됐다.

KIA는 4일 메이저리그 20승 출신의 ‘괴짜 투수’ 호세 리마와 계약금 4만 달러, 연봉 23만5천 달러 등 총 27만5천 달러에 계약했다.

2007 시즌 LA다저스에서 활약했던 내야수 윌슨 발데스도 계약금 7만 5천 달러, 연봉 22만 5천 달러 등 총 30만 달러에 KIA 유니폼을 입게 됐다.

도미니카 출신의 리마는 키 188cm와 몸무게 95kg으로 13년의 메이저 경력을 통한 풍부한 노하우와 경기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구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리마와 같은 도미니카 출신인 발데스는 키 180cm, 몸무게 73kg으로 공격과 수비, 주루 능력을 고루 갖춘 선수로 폭넓은 수비와 우수한 송구 능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스포츠 경제

### 6일(일)

▲07/08 잉글리시FA컵 3R<토트넘 : 레딩>(00 : 00·MBC ESPN)<아스턴빌라 : 맨체스터Utd>(02 : 00·MBC ESPN)

▲07/08 NBA(09 : 30·SBS 스포츠)

▲07/08 V리그 남자부<대한항공 : 현대캐피탈>(13 : 30·KBS N SPORTS)<여자부<GS칼텍스 : 흥국생명>(16 : 00·KBS N SPORTS)

▲07/08 프로농구<KT&G : 모비스>(14 : 30·KCC : LG)<17 : 00·XPORTS>

▲07/08 프로농구<전자랜드 : 동부>(14 : 50·SBS 스포츠)<오리온스 : 삼성>(16 : 50·SBS 스포츠)

### 5일(토)

▲2008 메르세데스 벤츠 챔피언십 2R(08 : 00·SBS 골프)

▲07/08 NBA(09 : 30·MBC ESPN)

▲07/08 V리그 남자부<대한항공 : 현대캐피탈>(13 : 30·KBS N SPORTS)<여자부<GS칼텍스 : 흥국생명>(16 : 00·KBS N SPORTS)

▲07/08 프로농구<KT&G : 모비스>(14 : 30·KCC : LG)<17 : 00·XPORTS>

▲07/08 프로농구<전자랜드 : 동부>(14 : 50·SBS 스포츠)<오리온스 : 삼성>(16 : 50·SBS 스포츠)